



ESG와 시민의 행동

3주차. 시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

상허교양대학 송지호 교수

구조



"불공평한 보상을 받은 원숭이는 매우 화를 냈어요"

"포도를 받은 원숭이는 화내지 않았어요"

"협력하며 살아가는 동물들은 불평등을 싫어합니다"

"공평하게 나누지 않으면 반발하게 되죠"

"우리는 나누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시 민





우리 조가 내려보는 '시민' 의 정의

사회문제, 세상을 향한 감각 열기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무엇이냐?

QR코드로 고고 >>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

순위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	
1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16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2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17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3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18 대형산불 증가
4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19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5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20 미세먼지 증가
6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21 지구 온난화
7	폭염·한파 증가	22 지역발전 불균형
8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23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9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24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10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25 만연한 특권과 편법
11	노후 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26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12	어려운 재취업	27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13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28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14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29 가계부채 증가
15	청년 일자리 부족	30 저출산 문제

사회문제는 ...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 광산노동
(1908년, 미국)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2019년, 필리핀)



폭염 약자
(2019년, 한국)

사회문제는 ...

현저하게 다수가 구조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태



에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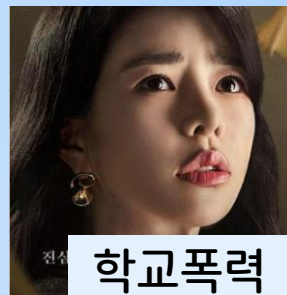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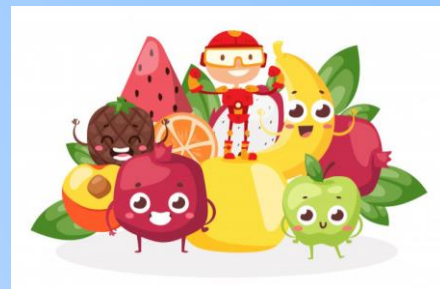
비만

고통은 ...

주로 안전, 생리적 욕구가 침해/결핍되었을 때 발생



줄 이어폰



학교폭력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

순위	현재 국민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 Top 30	
1	집값 불안정(전셋값 폭등 등) 및 주거부담 증가	16 공교육 붕괴 및 사교육 심화
2	소득 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	17 대체 에너지 개발 기술 부족(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부족)
3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증가(사이버범죄 및 온라인 성범죄 증가 등)	18 대형산불 증가
4	복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복지(복지 정책 및 제도 부족)	19 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5	이념·지역·정치적 갈등 심화	20 미세먼지 증가
6	투명하지 못한 정부 운영(정부 신뢰 하락)	21 지구 온난화
7	폭염·한파 증가	22 지역발전 불균형
8	학벌지상주의 및 학력/학벌 차별 관행	23 정서불안 및 자살 증가
9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체계 부족	24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부족
10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및 중소기업 인력난	25 만연한 특권과 편법
11	노후 주거지 및 주거생활권 불안	26 교육비 부담(비싼 등록금 문제 등)
12	어려운 재취업	27 세대/연령간 갈등 및 격차 심화
13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28 비정규직 증가(비정규직 차별)
14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 및 생활 폐기물 배출	29 가계부채 증가
15	청년 일자리 부족	30 저출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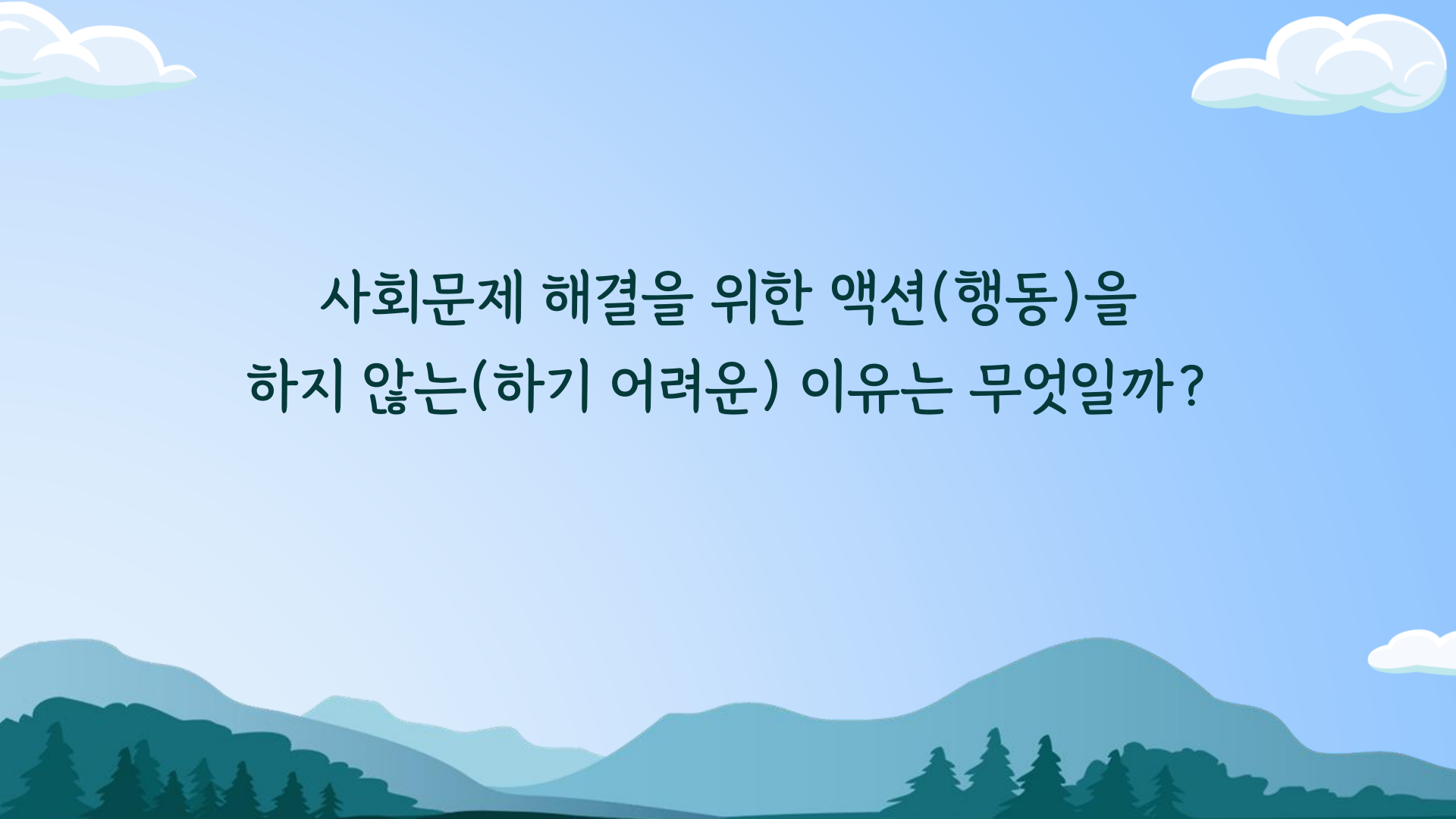
우리 팀에게 100조원의 예산을 배분할 권한이 있다면?



나에게 100조원의 예산을 배분할 권한이 있다면?

2020년	2021년	2022년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9조 1,960억원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20조 2,190억원 ▲1조 230억원	1 소득(경제) 및 주거 불안 /18조 7,610억원 ▼1조 4,580억원
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6조 6,910억원	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5조 9,130억원 ▼7,780억원	2 고용 및 노동 불안정 /13조 9,940억원 ▼1조 9,190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3 삶의 질 저하 /9조 6,390억원	3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9조 9,850억원 ▲4,755억원	3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11조 1,540억원 ▲1조 1,690억원
4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9조 5,095억원	4 삶의 질 저하 /9조 5,5850억원 ▼540억원	4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9조 2,040억원 ▲2조 2,140억원
5 안전 위협 /9조 405억원	5 교육 불평등 /8조 7,740억원 ▼710억원	5 안전 위협 /8조 6,900억원 ▼2,240억원
6 교육 불평등 /8조 8,450억원	6 안전 위협 /8조 4,660억원 ▼5,745억원	6 삶의 질 저하 /8조 7,390억원 ▼8,460억원
7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7조 930억원	7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7조 760억원 ▼120억원	7 교육 불평등 /8조 6,600억원 ▼1,140억원
8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7조 880억원	8 에너지 및 자원 불균형 /6조 990억원 ▼1,030억원	8 자연재해 /7조 4,940억원 ▲7,480억원
9 자연재해 /6조 7,535억원	9 자연재해 /6조 7,460억원 ▼75억원	9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6조 7,270억원 ▼3,490억원
10 사회통합 저해 /6조 1,445억원	10 사회통합 저해 /6조 2,450억원 ▲1,005억원	10 사회통합 저해 /6조 5,770만원 ▲3,320억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액션(행동)을
하지 않는(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1

자본/비용이 부족해서

58.1

2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보가 없어서

54.9

3

사회문제를 해결할 지식이나 역량이 부족해서

53.7

4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51.9

5

시간이 부족해서

47

6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여겨져서

43.3

7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려는 용기가 부족해서

42.8

8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42.5

9

문제 해결 성과에 대한 혜택(격려, 칭찬, 이익 등)이 부족해서

21.6

10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서

17.7

사회문제 해결 위한
액션(행동)을 하지
않는(하기 어려운) 이유

사회적가치연구원 / 2022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쪽방촌
얼음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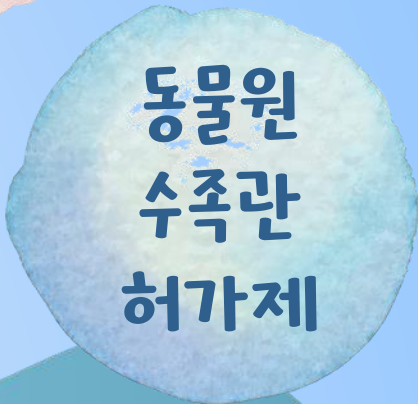
섭식장애



색맹/색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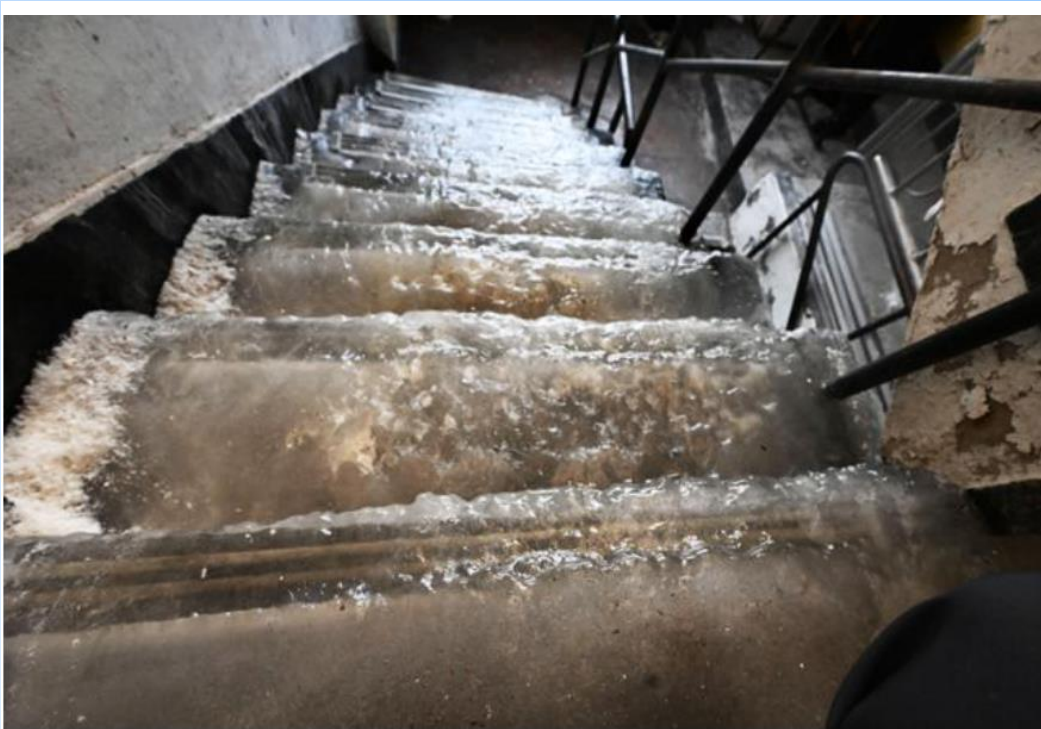


돌봄노동



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쪽방촌 얼음계단



27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 건물 계단이 얼어붙어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아찔하다. 고영권 기자

"(이러다) 미끄러져서 죽겠어." 차디 찬 철제 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며 노인이 말했다. 내려다보니 그의 발밑이 온통 빙판이다. 마치 얼어붙은 폭포처럼 계단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쪽방촌 얼음계단

보기만 해도 오싹한 '얼음 계단'은 깊은 골짜기도, 골목길 이면도로도 아닌 서울 한복판의 건물 내부에 있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진 27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쪽방촌. 건물에 들어서자 1층 벽면과 계단 경사면을 따라 주렁주렁 매달린 고드름이 눈에 띄었다. 말이 건물 내부지 온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냉골'이었다.

문제의 얼음 계단은 이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있다. 계단을 뒤덮은 얼음판 중 심한 곳은 족히 5cm도 넘을 정도로 두껍게 얼어 있어 물이 꽤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계단을 타고 흘러내린 것으로 보였다. 조심스럽게 얼음 계단을 올라가 보니 물이 새어 나온 화장실 바닥 또한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27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화장실 바닥이 얼어 붙어 있다. 고영권 기자

섭식장애

나는 아이돌 데뷔도, 섭식장애 탈출도 실패했다

[섭식장애와 여성의 몸] 전쟁터가 된 몸

곽예인 | 기사입력 2023/02/08 [19:06]

회사는 43kg를 요구했다

화려하고 반짝이는 세계의 일원이 되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모른다.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아이돌 데뷔 기회가 찾아왔다. 꽤 유명했던 아역배우를 필두로 여자 아이돌 멤버를 짜고 있는데, '덕후몰이상'을 담당할 멤버로 내가 발탁된 것이다. 마침 쌍꺼풀이 없는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새로운 유행처럼 각광 받고 있었다. 쌍꺼풀이 없어 성형수술을 해야 오디션에 불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던 내게 주어진 꿈만 같은 기회였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의 내 모습. (곽예인 제공 사진)

그러나, 그렇게 얻게 된 기회는 마냥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회사에서는 매주 전신이 나오는 영상을 찍어갔다. 그들은 매번 명확한 것을 요구했는데, 그건 노래 실력이나 춤 실력이 아닌 '43kg'이라는 숫자였다. 163/43, '키-120'이 되어야 데뷔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40kg 후반대에서 50kg 초반대를 오가던, 내 섭식장애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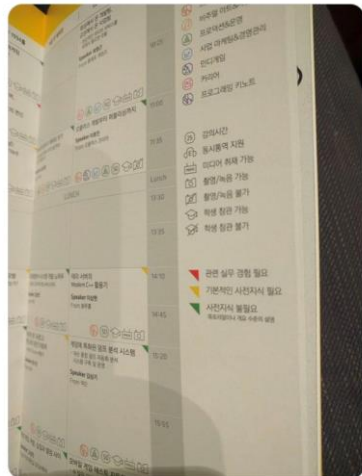
색맹/색약



트윗



김제이씨 @7c7f7 · 2016. 4. 26.
적록색약에 대한 자비심이 없는 색배치...



2 639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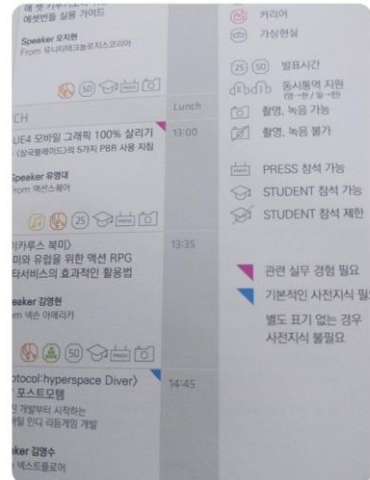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Nexo... · 2017. 4. 25. ...
안녕하세요. 올해도 NDC에 오셨나요?
작년에 알려주신 적록색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
이도 표시 디자인을 바꿨는데요. 다소나마 도움되셨
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
하겠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532 58



김제이씨 @7c7f7 · 2017. 4. 25. ...
이거 받자마자 색 배치부터 확인해 봤는데, 잘 보이도
록 바뀌어 있더라구요. 1년 전 트윗 기억해 주셔서 감
사합니다 ㅠㅠ



1 630 71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 @Nexo... · 2017. 4. 25. ...
다행입니다! 색각 시뮬레이터 테스트를
해보긴 했지만 정말 도움되실지 몰라서 걱정했었습
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
습니다~

2 187 25

돌봄노동

한겨레21

구독하기



돌봄을 돌보기 위하여 1378호

글로벌 '하인 계급' 된 저임금 외국인 가정부들

인종·계급·젠더에 따라 달라지는 '돌봄 받을 자격'
싱가포르에서 미얀마 가정부 학대당해 24kg로 숨지기도

돌봄노동

≡ 한겨레21

돌봄을 돌보기 위하여 2378호

글로벌 '하인 계급' 된 저임금 외국인 가정부들

인종·계급·젠더에 따라 달라지는 '돌봄 받을 자격'
싱가포르에서 미얀마 가정부 학대당해 24kg로 숨지기도

'돌봄 줄 아는 존재'가 높이 평가받아야

이를 위해선 먼저 돌봄 노동을 공유하고, 평등하게 분배하며, 그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들에선 '가족'이 의식주 제공부터 보호와 간호까지 돌봄의 최소 단위로 기능했다. 코로나19 위기로 다시 가족이 돌봄의 중층적 요구를 수행하는 장소가 되면서 여성에게 많은 부담을 지운다. 여성은 돌봄 시장에 나온 다른 여성의 돌봄 노동을 사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최근 국외에서 대규모로 돌봄 이주자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 또한 한국 고학력 여성들의 취업과 사회 진출을 위해 '저렴한' 외국인 가정부를 '수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시간을 빼앗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고, 가족 내 돌봄 노동의 공평한 분배를 문제 삼지 않은 채 돌봄 공동화를 다시 '여성'의 일로 환원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를 운영하고 재생산하는 데 가장 필요한 돌봄은 다시 여성의 일로 분절화되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부재는 여성 간 글로벌 계급 격차로 인한 차별과 갈등의 문제로 재현된다.

한 국가의 사회적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단순히 외국인 이주자를 싼값에 고용해 해결할 수 없다. 돌봄 노동은 '필수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권 재생산을 보장하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논의와 법 제도화가 필요하다. 가장 긴급한 일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임금노동자가 되기 위해 교육받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돌봄 줄 아는 존재로 역할하는 돌봄자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돌봄 역량을 갖춘 이가 높이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어 돌봄의 인종·젠더·계급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환경부 "동물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동물원 허가제" 시행 발표



뉴스펍권

2020.12.25. 12:00 | 581 읽음

22일 환경부는 추후 동물카페 등에서 라쿤, 왈라비, 이구아나 등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보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외 동물은 모두 야생동물에 속한다.



동물카페 방문객이 라쿤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동물복지연대 어웨어, 휴메인벳 제공)/뉴스펍권

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과 사람 간 접촉 관리를 강화한다"며 "동물원 혹은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이전까지 동물 전시를 위해 전문인력, 동물종과 개체수 목록 제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이 등록만 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동물원 등록제'를 2021년 전까지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물카페는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동물카페는 실내에 야생동물 혹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동시에, 카페를 방문한 고객이 동물을 관람하거나 체험하는 형태를 가진 매장이다. 동물카페는 동물원이 아닌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로 꼽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동물이 사는 곳과 고객이 머무는 공간이 분리돼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나마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사진 동물복지연대 어웨어,휴매인벳 제공)/뉴스평권



질문들을 환영해 😊



다음 주에 만나!

